

테러에 대한 정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Influence of Terror Information on Fear of Terror

김상운*, 조승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제의료경영학과**

Sang-Woon Kim(ksw48@naver.com)*, Seung-A Cho(vaggio10@cu.ac.kr)**

요약

이 연구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유형에 의하여 실제 국민들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보 유형에 따라 두려움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납치·유괴·지격·약탈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공포상태를 야기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테러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활동이 위축된다. 따라서 테러는 단순히 폭력행위를 통한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 모두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가 확인된 정보에 비해 두려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테러리즘 | 테러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테러정보 | SNS | 공식뉴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error information on fear of terror. This study examined how indirect delivery of terror information influence on the public's fear toward terror to identify the reason for fear toward terror and to analyze the varying influence based on the information type.

Terror is an unjust way where individual or group with certain purpose use various types of violence such as murder, abduction, kidnapping, sniping, and plunder to raise social fear status and accomplish their own will. When terror occurs, many people show fear toward terror and they withdraw from all life activities due to fear. Thus, terror goes beyond creation of fear by using the violence. Instead, terror has a negative influence on people's lives in al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This study examined how terror information influencing on indirect terror experience influences on the fear of terror. The result showed that both confirmed information and unconfirmed information influencing on indirect experi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ear of terror. Also, the result showed the unconfirmed terror information had higher influence on the fear compared to the confirmed information.

■ keyword : | Terrorism | Terror | Fear of Crime | Terror Information | SNS | Official News |

1. 서론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이라크 및 아프카니스탄 등 분쟁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테러리즘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는데, 전통적인 폭탄테러 뿐만 아니라 기술의 고도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의 대상에 있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테러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매체의 글로벌화에 따라 그 파급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1].

테러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02년 발생한 발리 폭탄테러 이후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주요 밀집지역에는 여전히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 국무부에서도 2003년에 ‘세계 테러리즘의 패턴(Patterns of Global Terrorism)’을 통하여, 느슨하였던 조직이 국제적 네트워크로 형성되면서 종교적으로도 이념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가 간 상호 연대와 대량살상무기가 확산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466건에 불과하였던 테러발생 건수가 12년이 지난 2013년에는 무려 10배에 육박하는 4,096건이 발생하는 등 테러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활동이 많아진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 이상 테러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대량 살상형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테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실제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5월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한 후 일각에서는 외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도 내비쳤다. 여행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는

“프랑스 파리 여행을 포기해야 할까요?”라는 글도 등장했다. 글쓴이는 “8월 여름휴가로 프랑스를 가려고 파리에 숙소까지 예약해 놨다”며 “테러가 발생한 장소와 거리가 꽤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비행기 예약할 때는 설레서 두근뻐했는데 지금은 걱정돼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으나 실제 테러로 인하여 여행을 취소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3].

이렇듯 테러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테러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테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각종 정보전달 요소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특히, TV와 뉴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보다 SNS 및 인터넷의 정보전달을 더욱더 활용하는 요즘 세대의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유형에 의하여 실제 국민들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보유형에 따라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에 출국준비 중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테러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전달 매체와 이에 따른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계패키지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테러의 의미

테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특정목적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4].

테러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특정목적 달성하

기 위한 폭력행위라고 동의하고 있으나, 학자별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표 1]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테러의 학자별 정의[5]

학자	년도	내용
Cline & Alexander	1984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폭력 사용의 한 형태로 저항도 수준의 폭력을 사용하는 전쟁
Wilkinson	1986	조직적인 살해 및 파괴 그리고 살해와 파괴에 대한 협박을 함으로써 개인, 단체, 특정 공동체 혹은 정부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어 테러리즘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
조영갑	2004	개인·집단 혹은 정부가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이나 폭력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징적·심리적 폭력행위
이재은	2009	정치적경제적사회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적 수단 또는 비폭력적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구성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
김성진	2018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단체 또는 집단을 협박하거나 이를 위한 폭력적 및 비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상징적심리적인 행위

우리나라에서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를 보면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 위협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을 통하여 테러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표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테러 행위

1.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2.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4.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5.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테러는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과격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으로 과격한 형태로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생활이 위축되고 결국 사회·경제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과격한 수단으로 종종 이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테러 발생 사유, 테러의 주체, 요구 사항 등 불분명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테러의 방식도 점점 과격해지고, 종잡을 수 없는 유형으로 발생하여 테러대응이 어려워졌다. 그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의 의의

2.1 미디어의 의의

미디어란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시스템의 등장과 개인 미디어 장비의 보급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사회 전체를 통괄하고 제어하는 기능까지도 떠맡게 되었다[6].

다시 말해, 기존 미디어의 정의는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각종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2.2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미디어로 인하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중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

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최재용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잦은 TV 보도는 개인이 인지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관련 보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할 수 있는 미디어 창구의 등장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현대 문화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문화범죄학은 현대사회 속에서 문화적 재생산 과정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던 바,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8].

이렇듯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테러와 관련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테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연구는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

3.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이란 범죄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악영향의 일종으로 범죄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영향을 감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두려움은 심리적 혹은 정서적 반응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명확히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는 등 학자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표 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학자별 정의[9]

학자	년도	내용
Furstenburg	1971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을 추정
cgarofalo	1979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범죄피해자가 되거나 간접적인 관찰자 혹은 듣게 되는 등의 영향과 범죄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특정한 환경조건을 지각하게 되어 느끼는 것

warr	1984	위험과 불안감으로 특정 지워지는 감정적반응
ferraro	1995	범죄피해의 위험을 지각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
hough	1995	감정과 인식이 얽혀있는 복합체
walkate	2001	범죄피해 위험이나 공공안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라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는 의미
차훈진	2008	위험과 불안감으로 특정 지워지는 감정적반응

3.2 범죄 두려움의 영향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피해당사자가 겪게 된다. 이들은 물리적·재산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겪는 등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직접적인 범죄피해는 피해 당사자에게 외형적 손상을 초래하지만, 간접적인 범죄피해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범죄피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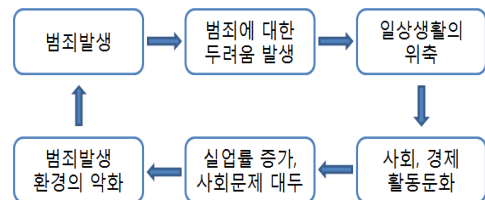


그림 1. 범죄 두려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테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대형 범죄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야기한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시민들은 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축소시키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피하게 됨으로써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둔화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해당지역은 슬럼화(slumism)되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되어 다시 범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

지게 된다.

실제로 Foster 외(2014)의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걷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22분 감소하고 학교, 직장에 가기 위한 도보 시간이 7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여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범죄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93배 높으며 운동, 친구와 보내는 시간 등의 사회적 활동도 덜 참여한다[11].

이러한 범죄두려움의 영향에 대하여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Detotto와 Vannini의 연구(2010)에서는 국가수준에서 범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Cullen과 Levitt의 연구(1999)에서는 지역 사회 수준에서 높은 범죄율은 주민들의 이탈 현상을 촉진함으로써 이웃의 쇠퇴 과정을 자극한다고 하였다[12].

이렇듯 범죄로 인한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서 테러의 정의를 언급한 바와 같이 테러란 넓은 의미로 정치적 불만을 홍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 정부나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13].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테러 또한 폭력적인 범죄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테러에 대한 정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모형

1. 연구방법

테러 또한 폭력 범죄의 유형으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듯 테러가 발생할 경우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우려되는 것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개인이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여파가 국민 생활의 불안감, 낮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공동체의 안전을 약

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의 정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과 동시에, 둘째, 테러의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뉴스 및 신문 등과 같은 확인된 정보와 SNS 및 인터넷 게시판 등 각종 미확인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정보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실제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 사전 교육받은 조사원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56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설문자료를 통계패키지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으로 가설을 분석하였다.

2. 연구모형

이 연구는 테러의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로 인하여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테러로 인하여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테러의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살펴보고,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테러에 취약한 우리나라 국민의 테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테러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미디어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를 두려움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테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를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확인된 정보는 TV 및 신문 등과 같이 언론사를 통하여 사실유무 확인 후 제공되는 정보와 SNS 및 인터넷 게시판 등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전달되는 미확인된 정보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테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반응과 테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 후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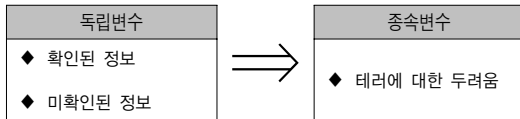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3. 연구의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테러에 대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테러에 대한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전국 국제공항에 나가 해외여행 출국 직전 대기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856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36	50.9
	여	420	49.1
연령	20대	261	30.5
	30대	243	28.4
	40대	165	19.3
	50대	135	15.8
	60대 이상	52	6.1

년 해외 여행 횟수	1~2회	756	88.4
	3~5회	91	10.6
	5~10회	6	0.7
	10회 이상	3	0.3
최근 여행 국가	동북아시아	324	72.3
	동남아시아	72	16.1
	중동·중앙아시아	3	0.7
	유럽	33	7.4
	아메리카	11	2.5
	아프리카	1	0.2
여행 형태	기타	4	0.9
	가족·친구와 하는 자유여행	281	33.0
	가족·친구와 하는 개별여행	106	12.4
	혼자하는 자유여행	75	8.8
	혼자하는 개별여행	23	2.7
	학교·직장 단체여행	34	4.0
	여행사 전체 패키지 여행	258	30.3
	출장 등 비즈니스 여행	60	7.0
	의료관광	1	0.1
	선교여행	2	0.2
	기타	12	1.4
체류 기간	5일 이하	432	50.5
	6~10일	216	25.3
	11~15일	149	17.4
	16일 이상	20	2.3
	그 이상	37	4.3
직업	모름	1	0.1
	사무직	354	41.5
	생산직	15	1.8
	전문직	80	9.4
	판매종사(도소매영업보함외 판원 등)	21	2.5
	학생	201	23.6
	주부	60	7.0
	농림축수산 및 어업 종사자	42	4.9
	서비스직	47	5.5
	은퇴/무직	26	3.1
거 주 지	기타	6	0.7
	서울	165	19.3
	인천	52	6.1
	대전	127	14.8
	대구	121	14.1
	부산	37	4.3
	울산	27	3.2
	광주	52	6.1
	경기	84	9.8
	강원	36	4.2
	충북충남	31	3.6
	전북·전남	77	9.0
	경북·경남	45	5.3
	제주	2	0.2
소계	856	100.0	

이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0.9%(436명), 여성 49.1%(420명)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30.5%(261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28.4%(243명), 40대

19.3%(1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해외여행 횟수는 1~2회가 88.3%(756명)로 가장 많았으며, 3~5회가 10.6%(91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북아시아 국가(72.3%(324명))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남아시아(6.1%(72명)), 유럽(7.4%(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행의 형태는 항공권·숙박원은 패키지로 구입하고, 관광은 여행자 재량으로 가족·친구와 다녀온 여행의 형태가 33.0%(28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여행사 전체 패키지여행이 30.1%(258명)로 나타났고, 여행 체류기간은 5일 이하가 50.5%(432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대상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41.4%(35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생이 23.5%(201명)로 나타났고, 거주지는 서울이 19.4%(165명)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4.8%(127명)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VI.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테러에 대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 가설 1의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327	.069		33.704	.000
확인된 정보	.107	.024	.195	4.494	.000*
미확인된 정보	-.094	.024	-.171	-3.948	.000*
R2=.023, F=11.173					

* .p<0.05 ** .p<0.01

가설 1에 대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테러에 대한 확인된 정보에 따른 두려움(p=.000)과 테러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에 따른 두려움(p=.000) 모두 해외여행을 선택하는데 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

험에 의하여 발생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테러를 직접적인 경험을 한 국민이 손에 꼽을 만큼 적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간접적인 경험의 효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간접적인 경험은 또다시 TV 뉴스 및 신문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통하는 경우와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미확인된 정보를 통하여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테러 경험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식에 상관없이 미디어를 통한 테러 정보에 의하여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테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나,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느끼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테러에 대한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6. 가설 2의 분석

모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2,205	.062		35.384	.000	.007
	확인된 정보	.049	.019	.088	2.578	.010	
2	(상수)	2,327	.069		33.704	.000	.023
	확인된 정보	.107	.024	.195	4.494	.000	
	미확인된 정보	-.094	.024	-.171	-3.948	.000	
R2=.090, F=16.578							

* .p<0.05 ** .p<0.01

가설 2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테러에 대한 확인된 정보(R2=.007)보다 미확인된 정보(R2=.023)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확인된 정보의 경우 미디어가 테러에 대한 피해와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보

를 전달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대응 및 안전 확보에 대한 정보 등을 얻어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를 통하여 테러를 접할 경우 몇 번의 전달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제 내용보다 과장되어 전달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탓에 테러에 대한 위협이 더 크게 과장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보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미확인 정보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테러 및 각종 범죄 등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불확실한 인터넷 및 SNS가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V. 결론

이 연구는 테러에 대한 정보의 전달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테러는 자신들의 특정 목적을 과격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으로, 과격한 형태로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생활이 위축되고 결국 사회·경제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범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축소시키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를 회피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둔화시킨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해당지역은 슬럼화(slumism)되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서 범죄가 재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폭력적 형태인 테러를 일으킬 경우 사회전체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됨으로써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테러에 대한 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경향이 심화된 탓에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테러정보를 접하는 경험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신문·TV를 통한 공식적인 정보와 SNS·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미확인 정보 간 테러에 대한 두려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접적인 테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 모두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 정보 중 미확인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테러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국민들도 테러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들도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인터넷 및 SNS 등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테러 정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 [1] 박나라, 이보현, “테러경보시스템의 운용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pp.113-140, 2018.
- [2] 김성진, “테러 발생 시 군(軍) 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 증대방안 고찰,” 군사논단, 제95권, pp.192-223, 2018.
- [3] 시빅뉴스, “무차별 테러에 여행객들 공포...잠잠하던 IS, 파리 이어 인도네시아서 공격,”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40>, 2018.5.13.

- [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8933&cid=50307&categoryId=50307>, 2018.11.2.
- [5] 김성진, “테러 발생 시 군(軍) 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 증대방안 고찰,” 군사논단, 제95권, pp.192-223, 2018.
- [6]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021&cid=60657&categoryId=60657>, 2018.11.2.
- [7] 최재용, 한보영, 이운호,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제8권, 제3호, pp.133-161, 2014.
- [8] 최재용, 임하늘, 이운호, “미디어 노출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 경찰학연구, 제15권, 제3호, pp.175-204, 2015.
- [9] 양승돈, 오봉욱,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실태 및 국제사회의 공조방안,”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pp.97-116, 2015
- [10] 차훈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론적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2호, pp.241-257, 2014.
- [11] 최재용, 임하늘, 이운호, “미디어 노출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 경찰학연구, 제15권, 제3호, pp.175-204, 2015.
- [12] 김성연, “범죄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범죄학회, 제12권, 제1호, pp.55-80, 2018.
- [13] 이민영, “테러 뉴스의 서술 수준과 예시 유형이 테러 관련 인식과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5권, 제1호, pp.153-185, 2018.
- [14] 신재현, 김상운, “다문화사회의 자생적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Crisisonomy, 제9권, 제2호, pp.49-72, 2013.

저 자 소 개

김 상 운(Sang-Woo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정계, 조직

조 승 아(Seung-A Cho)

정회원



- 2012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박사)
- 현재 : 대구가톨릭대 국제의료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관광정책 및 개발, 관광통계, 의료관광